

# 혜능 선사의 보임수행처에 동화선사 우뚝

## 육조 혜능선사와 동화산

중국 광둥성(廣東省) 신흥현(新興縣)에서 태어난 6조 혜능 스님은 어려서 부친을 잃은 데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뿔나무를 팔며 살던 가난한 나무꾼 소년이었다. 어느 날 손님이 읽는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이란 구절을 듣는 순간 마음이 밝아져 황매산(黃梅山)에 있던 5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 출가의 뜻을 밝혔다.

이 때 홍인 스님이 "너는 영남지방의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사람을 떠보자, 혜능은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 행자가 된다.

혜능은 이후 절에서 여덟 달 동안 방아를 짚다가 마침내 홍인 스님의 입실 제자가 되어 <금강경> 법문을 듣고 단번에 크게 깨달아 그날 밤으로 법을 전수받아 선종의 6조(六祖)가 됐다. 밤중에 스승으로부터 전법의 표시인 '가사와 발우(衣鉢)'를 받고 시기하는 자들을 피해 남쪽으로 간 혜능 선사는 14년간 사냥꾼 무리에 숨어지내다가 조계(曹溪) 보림사에서 선풍을 크게 일으켰다. 그렇다면, 조사선의 진정한 창립자로 불리는 혜능 선사가 암살 위협을 피해 숨어서 보임(保任) 즉, 깨달음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공부에 몰두한 곳은 어디일까. 그곳은 광둥성 옹원현(翁源縣) 동화산(東華山) 자락이었음이 본지 취재결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밝혀졌다.

### #혜능 선사, 옹원현 동화산에서 14년간 보임

10월 24일 오후, 광둥성 광주공항에 내려 2시간 30분 정도 승용차를 달려 도착한 옹원현에서 다시 시골길을 10여 분 정도 들어가니 기이한 풍광의 산세가 모습을 드러낸다. 독수리봉, 사자봉, 코끼리봉, 관음봉, 낙타봉 등의 형상을 한 봉우리로 둘러싸인 동화산이었다. 석회암 동굴이 발달되어 곳곳에 긴 동굴과 수행처가 남아있는 동화산은 그야말로 육조 스님이 한눈에 수행처임을 직감할 도량이었다.

<소관부지(韶關府志)>의 기록에 따르면, 남조시대 양나라 무제의 천감 원년(502년)에 인도의 고승 지약(智藥) 선사가 바다를 건너 광둥성 옹원현 동화산에 왔다고 전한다. 지약 선사는 이 산의 영기(靈氣)가 비범하다고 느껴 영취사를 창건했다. 영취사는 수나라 때 전쟁으로 파괴되었는데, 당나라 때 육조 혜능 스님이 정혜 스님을 데리고 와서 영취사를 동화사로 개명했다. 그러나 명청 때의 전쟁으로 다시 폐사가 되고 말았다.

동화산에는 그후 절터만 남아있었지만 다행히 동굴 수행처들은 온전히 보전됐다. 특히, 깎아지른 절벽 위에 나있는 혜능동(慧能洞)은 지약 선사와 혜능 선사가 머물던 동굴로, 현재 삼성동(三聖洞)으로 개명되어 잘 관리되고 있다. 젊은 선객이었던 만행 스님이 1997년 8월부터 3년간, 이 동굴에서 세 번째 폐관(閉關: 공양구만 남기고 문을 봉인한 채 정진하는 무문관 수행) 정진을 무사히 마친 후, 혜능



관광객 출입이 금지된 동화선사의 자재담(自在堂). 3층으로 구성된 선원에는 1000여명이 동시에 참선할 수 있다.

## “행동하는 자비심이 진정한 자비심” 만행 스님 ‘폐관 수행’ 알려지며 30만명 신도모여

등을 삼성동으로 개명하고 동화선사를 창건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1997년 대만의 고승 약취 스님의 증언에 입관(立關)을 치른 만행 스님은 혜능동에 들어가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죽거든 동굴 밖 멀지 않은 곳에 묻어주시오. 수행하는 사람의 호법(護法)이 되고 삼성동의 호법이 되겠소."

### #만행 스님 혜능굴에서 세 번째 무문관 수행

만행 스님이 무문관 수행을 처음 결행한 것은 민남(閩南)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22세 되던 1993년 1월부터였다. 복건성 장주시 서쪽 사 근처의 동굴(龍巖洞)에서 여러 도반 스님들과 거사들의 성원을 받으며 입관한 스님은 23개월을 보낸 후, 1994년 12월 20일 출관했다. 동굴에서 스님은 하루 18시간씩 좌선을 하고, 나머지 6시간도 '율마니반메홀' 6자진언과 태극권 등을 수련하며 잠을 자지 않았다. 좌선할 때는 결가부좌를 하고 굴의 천장에 기둥을 매고 동아줄을 늘어뜨린 뒤 목을 감음으로써 혹여 자신도 모르게 눕게 되는 것을 방지했다. 2년간의 혹독한 폐관 수행을 하며 스님은 무아(無我)삼매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스스로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긴 만행 스님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서장(西藏) 연화도에서 1995년 1월부터 1996년 가을까지 두 번째 폐관 정진에 들어갔다. 랍몽(拉蒙) 대선사의 지도아래 육근(六根)을 단고 하루 종일 선정에 들어, 명심견성(明心見性: 마음을 밝혀 성품을 밝고 실상무상(實相無相: 실상은 모양이 없음을 체험한다).

그러나 랍몽 대선사는 "너는 이제 젖을 떼어도 되겠다. 그러나 더 튼튼하게 하자면 아직도 수차 반복하면서 걸러내야 한다"며 철저한 보임공부를 당부한다.

그러하여 마지막 목숨을 건 폐관 정진이 1997년 8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이곳 혜능동에서 이어진 것이다. 끝없이 머무는 바 없이, 닦는 바 없이 3년간의 무문관 수행을 마친 스님은 "중국의 미지(未知)를 철저히 깨달아 온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리는 가운데 공(空)과 유(有)를 초월하고 삼계를 초월해 다시금 세간으로 돌아왔다"고 전한다.

#365일 집중수행 하는 동화선사  
"믿으려면 굳게 믿고 수행하려면 꾸준한 힘을 다하라. 일 처리는

원만하고 융통성 있게 하라. 도(道)는 인간 세상에 있으며 '공'에도 '유'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와 같이, '행동 하는 자비심이 진정한 자비심'임을 깨달은 만행 스님은 마침내, 무문관 수행처 아래 옛 동화선사 터에 동화선사를 창건했다. 그리고 중국불교협회의 비준아래 1998년 동화사 방장에 취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동화선사를 증축, 1000여명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광동성 최대의 선종 사찰을 증건하기에 이른다. 이제 일반대중을 상대로 수행과 보살행을 지도할 전법도량이 마련된 것이다.

10월 25일 새벽 4시 30분, 동화선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예불은 비구, 비구니 스님 50명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중국식 종과 목탁, 요령 등의 율림과 엮불 가락이 아름답고도 장엄한 화음을 연출했다. 능엄신주 염송과 아미타경 독경, 관음 정근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예불의식보다 복잡하고 길지만 예불시간 자체가 엮불·독경 수행이 뭉클했다.

예불이 끝나자 사부대중은 대웅전에서 나와 기러기 처럼 줄을 지어 아직 어두운 도량을 가로질러 공양간으로 향한다. 1000여명은 수용할만한 넓은 공양간에서도 예불은 엄정했다. 사부대중은 일사불란하게 공양진언을 외운 후 묵언하며 식사를 하고 공양구도 직접 씻는다.

아침 청소 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참선, 간경, 설법, 연화생(불교 기공) 수련 등 수행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저녁예불에 이어 밤 9시까지 이어진다. 365일 내내 집중수행이 이어지는 중국에서도 보



동화선사 방장 만행 스님이 3년간 무문관 수행을 마친 삼성동(翁)에서 좌선하는 필자(아래 왼쪽)와 대유학당 윤삼철 대표.



※ 카타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행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대-국 6절 (30×31cm) | 소-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